

전남도청 서창완,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계주 우승

김세희와 짝 이뤄 벨라루스 제쳐...한국 혼성계주 사상 첫 메달

서창완(전남도청)과 김세희(BNK저축은행)가 2021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혼성 계주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서창완과 김세희는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대회 혼성 계주 경기에서 총 1432점을 따내 벨라루스의 일리아 팔라츠코프, 아나스타시야 프로코펜코(1422점)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10년부터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열린 혼성 계주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메달권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창완은 지난해 11월 해남에서 열린 '제7회 한국실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경기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전남도청 근대5종팀 주축인 서창완은 남일부 근대5종 개인전에서 1위에 올랐고, 박상규와 호흡을 맞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근대5종은 서창완-김세희

의 금메달과 전용태(광주시청)-정진화(LH)의 남자 계주 은메달 등 두 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표팀을 이끈 김성진 코치는 국제근대5종연맹으로부터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한편 2020 도쿄올림픽 전 마지막 근대5종 국제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는 남자부 전용태, 정진화, 이지훈(LH), 서창완 등 총 4명이 출전권을 확보했고, 여자부에선 김세희가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도쿄올림픽 근대5종은 개인전만 열리며 남녀 2명씩만 출전할 수 있어서 남자 선수 중에선 대한근대5종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 세계랭킹 순위가 선발될 예정이다.

현재 남자부 세계랭킹은 4위 전용태, 18위 정진화, 21위 이지훈, 25위 서창완 순이라 전용태와 정진화의 올림픽 출전이 유력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서창완(오른쪽)과 김세희가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1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혼성 계주 종목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 조작' 강동희 제명 유지 KBL 징계 해제안 기각 결정

승부조작으로 프로 농구에서 제명된 강동희(55·사진) 전 원주 동부(현 원주 DB) 감독의 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KBL은 15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강 감독에 대한 제명 징계 해제안을 두고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강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로서 각종 국제 대회에 출전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과 징계 후에도 지속해서 강사로 활동하며 후배 선수들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현시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안건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KBL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재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KBL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KBL은 강 감독 본인과 10개 구단 감독을 비롯한 농구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장대 총재의 판단에 따라 이번 재정위를 열었다.

제명 징계가 해제되더라도 실형은 산 점 등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지도자 등으로 농구 현장에 복귀하기 힘든 상황에서 강 감독이 이처럼 복권에 의지를 보인 것은 그만큼 명예 회복을 강하게 바랐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인 두 아들이 모두 농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강 감독이 복귀를 시도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강 감독은 형을 마친 뒤 지속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스포츠협회 부정부패 교육 강사, 각종 봉사활동, 강동희 장학금 수여 등 활동을 했다.

강 감독은 2011년 2~3월 프로 '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경기 후 선수들을 투입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8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어 같은 해 9월 KBL에서 제명됐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강경민·원선필 올림픽서 일 낸다



강경민

최종 엔트리 15명에 포함...한국 13년만의 메달 사냥 앞장

광주도시공사 강경민과 원선필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13년 만의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14일 도쿄올림픽 여자 핸드볼 본선에 출전할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15명을 확정했다.

광주도시공사 선수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에 발탁 된 것은 팀 창단 이래 처음이다. 이들은 올 시즌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광주도시공사를 정규리그 4위, 리그 통합 3위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2019~2020 시즌 화려하게 코트로 복귀해 2시즌 연속 정규리그 MVP와 득점왕을 석권한 강경민은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강경민은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정규리그 득점 1위(206득점), 공격포인트 1위(275개), 리그 MVP 2회 수상을 기록했다. 원선필은 피벗 부문 Best 7에 선정됐다.

최종엔트리에는 골키퍼 주희(부산시설공단)와 정진희(한국체대)가 골문을 지키며 레프트백(LB) 심해인과 김진이(이상 부산시설공단), 센터백(CB) 이미경(오르본), 강경민(광주도시공사), 라이트백(RB) 류은희(부산시설공단), 정유라(대구시청)가 백라인을 구축한다. 레프트윙

(LW)에는 최수민(SK슈가글라이더즈), 조하랑(대구시청), 라이트윙(RW) 김윤지(삼척시청), 정지인(RW, 한국체대), 피벗(PV) 강은혜(부산시설공단), 원선필(광주도시공사)이 14명 최종엔트리에 합류했다.

한국 여자핸드볼 에이스 류은희와 심해인, 정유라는 2012 런던, 2016 리우올림픽에 이어 3번째 올림픽에 참가하며 이미경, 조하랑, 주희, 김진이, 최수민이 각각 2번째 올림픽에 참가해 생애 첫 메달에 도전한다.

한국이 속한 A조에는 2020 유럽선수권대회 챔피언 노르웨이(1경기)와 2019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네덜란드(2경기), 개최국 일본(3경기),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강호 노르웨이를 제압하며 파란을 일으킨 몬테네그로(4경기), 아프리카의 북병 양골라(5경기)가 포진해있다.

조 4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역대 올림픽에 9번 참가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4위 2회를 기록하며 세계 최강의 면모를 과시해왔다. 하지만 2016 리우올림픽에서 조별예선 통과에 실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원선필

광주 육상 성과 뒤에 스포츠과학연구소 있었네

종별선수권 5명 파견 헌신 지원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연구소)가 굵직한 대회에서 현장지원 체계를 운용해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13일부터 5일간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육상종별선수권대회에서 광주 육상선수들을 뒷바라지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찾아오는 선수들을 기다리지 않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 대회에 박사급 연구원, 컨디셔닝센터 연구원 등 5명을 파견했다. 익산종합운동장에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첨단 회복장비를 활용해 선수들을 컨디션 관리하고 있다.

실제 이 대회에서 광주시청 김국영과 정해림이 지난 13일 정상에 오르는 등 연구소의 지원이 성

과를 냈다.

김국영은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34로 1위를 차지했다. 정해림도 여자일반부 100m 허들 결승에서 13초3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강다슬은 여자일반부 1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은 "현장에서 헌신 해준 연구소 관계자들 덕분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원이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993명(부상예방 훈련, 부상 후 회복, 현장밀착, 스포츠심리, 영양 등)에 대한 컨디셔닝 지원을 완료했다. 앞서 2억 여원을 들여 인공지능, 스마트훈련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최신장비를 갖췄다. 올해도 고압 산소 캡슐 등 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고주파를 이용해 김국영(육상, 광주시청)의 컨디셔닝 회복을 돕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끈질긴 한국 여자배구 캐나다에 3-2 역전승 네이션스리그 3승째 수확

한국 여자배구가 캐나다를 꺾고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3승째를 수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미니의 리미니 피에타에서 열린 VNL 넷째 주 예선 라운드 12번째 경기에서 캐나다를 세트 스코어 3-2(15-25 25-18 27-29 25-20 21-19) 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세르비아를 제물로 8연패를 끊은 한국은 2연승을 달려 분위기도 확 바꿨다.

한국은 캐나다와 3승 9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승점 9점으로 캐나다(11점)보다 2점 부족해 14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밀어붙이는 이탈리아, 태국이 있다.

점수가 말해주듯 2시간 41분짜리 혈투에서 끈질긴 한국 팀이 웃었다.

박정아(한국도로공사)가 24점, 김연경(중국상하이)이 23점을 터뜨려 공격을 주도했다. 정지윤(15점)과 양효진(12점·이상 현대건설)도 27점을 합작해 승리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2관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3관	쿠루엘라
4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캐시트릭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6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9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캐시트릭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씨네커몰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캐시트릭, 클라이밍
8관 씨네커몰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캐시트릭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플래시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캐터필러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19:30, 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